

국제 방송 · 음향 · 조명기기 전시회

나재희 MBC 차장

LED의 진화 must have 아이템으로 다가오다



이전까지 못 느꼈던 KOBA 2015에서 조명분야의 전시 느낌은 LED가 이제 Must have 아이템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스튜디오에 컨벤셔널 또는 무빙라이트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명감독이라면 혹은 텅스텐할로겐을 LED로 교체를 원하는 조명감독이라면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LED 제품을 구매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실, 이번 전시회에서 텅스텐 할로겐 장비를 본적이 있는지 기억을 되새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정도다. 텅스텐 조명제품으로 많은 이익을 남겼던 회사들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성능 향상된 LED 제품을 전면에 내세우며 관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국산 LED panel의 성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으며 오히려 가격경쟁력을 생각하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부할 수 있다. 작년 새로 지어진 MBC 상암 신사옥에서도 소프트군의 조명제품은 LED panel로 구매했으며 여타 다른 방송국스튜디오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의 LED panel 응용제품들이 대거 등장했다. 크기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플렉서블의 다양성 등을 내세우며 더욱더 진화하고 있었다. 가로 5cm만한 크기부터 3m가 넘는 크기까지 확장 가능한 크기의 LED가 전시되어 있어서 놀라웠다. 거기다가 영하 30

도에서도 견딜 수 있고 방수가 되기도 한다. 카메라나 마이크봉대에 장착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휘어지는 LED 제품은 그 활용 용도가 무궁무진하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하자면 하이브리드 상품이다. 즉, 현재 텅스텐제품의 외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안을 LED 시스템으로 교체해주는 업체가 있었다. 현재 많은 조명감독들이 기존 텅스텐을 버리고 LED를 교체하기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가 경제적 효과다. 그러나 이 하이브리드의 기술 이라면 램프의 가격과 비교해서도 많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구 환경 면에서도 세이브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이제 LED Spot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으며 밝기, 안전, 소음 등과 같은 성능들이 얼마만큼 개발 되었느냐가 사실 이번 KOBA의 주목할 만한 관심분야였다. 현재 대부분의 TV스튜디오에서는 2kw램프가 장착된 텅스텐 Spot을 많이 사용하지만 작년에는 2kw급 LED Spot 제품을 보기 어려웠으며, 있었다 해도 개발단계 정도로 구매력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전시회를 통해 3~4군데 업체에서 2kw급 밝기의 LED Spot을 선보인 것이 고무적이고 그 중 텅스텐 2Kw 장비보다 디자인과 무게 등이 뛰어난 장비도 있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구매력을 자극했을 거라 생각한다. 실제로 메이저급 방송국에서 구매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이제 LED는 Soft군과 Spot군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Must have 아이템으로 다가왔다.

무빙라이트 또한 LED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이 선보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무빙라이트를 선도하고 있는 Claypacky 제품이 가장 큰 부스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선보였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도 많이 보였다. 이제 무빙라이트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미국, 유럽 등의 정품을 사용할건지 정품을 이미테이션한 저가 중국제품을 사용할건지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매회를 거듭할수록 중국산 제품의 성능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극심한 경쟁이 예상이 된다.